



## 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

심의관 정홍근, 사무관 신민철  
(044-200-2132, 2135)

## 이낙연 국무총리, 「응오 쉐언 릭」 베트남 국방장관 접견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4일(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「응오 쉐언 릭(Ngo Xuan Lich)」 베트남 국방장관을 접견하고, 한-베트남 국방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과 양국 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- 이 총리는 베트남이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고,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채택된 ‘미래지향공동선언’을 바탕으로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- 릭 국방장관은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1위 투자국임을 평가하고,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,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.
- 또한 4월 23일(월) 개최된 한-베트남 국방장관회담에서 ‘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선언’이 채택되었다고 소개하면서, 이를 계기로 향후 양국 간 군 차원의 고위급 교류와 방산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
- 이 총리는 한·베트남 양국의 경제발전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, 지정학적 특성, 역사, 국민성, 문화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유한 양국이 소중한 발전경험을 공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- 릭 국방장관은 한국으로부터 경제발전 경험을 많이 배웠고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하면서, 베트남이 아직 사회주의 집중관리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만큼,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
- 또한 한-베트남 관계는 양국정상들의 각별한 관심 하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.
- 이번 이 총리의 릭 베트남 국방장관 접견은,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베트남 국민방문 이후 한-베트남 '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'를 더욱 심화시키고 신남방정책의 추동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.